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 되살리라고요? ”

'안보 공백'은 허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에게겐 백해무익

-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기 직전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굴욕적으로 체결(2016. 11. 23)한 것입니다.
-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와 함께 미국, 일본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북·중·러와 대결하기 위해 체결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되살리라고 강요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 » 한반도와 동북아에 냉전체제를 지속시키고 남북 분단과 대결을 고착시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애초에 체결되어서는 안 되는 협정이었고, 체결된 협정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며, 되살리면 결코 안 되는 협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본한테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의미있는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효용 가치가 없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N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
지켜주기 위한 것

- » 보수수구세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면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호들갑을 떨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도, 종료된 뒤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간에 교류하는 북한 미사일 정보는 일본을 방어하는 데는 조기경보로 도움이 되지만 한국 방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 오히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아베 정권이 남북 대결을 이용해 남한에 무기를 팔고, 이 협정을 통해 군사기술정보를 규제할 수 있게 합니다.
- » 대일 군사적 의존도만 높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합니다. 나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여는 협정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을 구조화시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싱가포르 북미 성명의 이행을 가로막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미국과 일본의 압력을 물리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을 막아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고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 한국에 떠넘기려는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해야!

- »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2019년(1조 389억 원)에 비해 6배나 많은 50억 달러(6조 550억 원)를 제시하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비용(34.5억 달러, 2019년 기준)뿐만 아니라 세계패권전략 실행을 위한 해외미군 전략자산(항공모함, 잠수함, 전략 폭격기) 전개와 호르무즈 해협, 남중국해 작전 등에 드는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에 대해,

“분담금의 기본 취지와도 안 맞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2018. 10. 1)

- » 미국의 요구는 '남한 방어' 임무를 벗어나 '세계패권전략' 실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고 '주한미군'이 아니라 '해외미군'의 비용까지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위반이며,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경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협정에도 위배됩니다.
- » 우리는 연간 5조 4천억 원(「2018 국방백서」, 2015년 기준)이 넘는 직·간접비용을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약 6조 550억 원)를 더하면 무려 1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방위비분담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어 무려 2조원이나 남아돌고, 미군은 이자놀이까지 해서 3000억 원의 이자소득을 불법 착복하고 있습니다.
- » 미국이 요구하는 약 6조 550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추경예산 약 5조 8천 억원을 상회하며, 30만개의 최저임금 일자리 또는 연 260만원의 농민 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우리 경제와 민생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봉이 아닙니다.
방위비분담금, 이제는 그만 주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불법부당한 청구서 내미는 청구
방위비분담특별협정도 폐기해야 합니다.**

